

사노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 2500 명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진행

- * 3 년 만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2,500 명에게 독감 백신 무료로 접종
- * 서울시,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 등 민관협력 통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 실시
- * 사노피, 2011 년부터 주거 취약계층 대상 누적 5 만 2,600 도스 상당의 백신 무상 지원

대한민국 서울, 2022 년 10 월 19 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는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 2,500 여 명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년 1 월 말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실시한다.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의료원 포함 9 개의 시립병원 소속 의료진들로 구성된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동하는의사회, 서울시 5 개 쪽방 상담소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주거 취약계층의 독감 예방접종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았다.

최근 질병청이 발표한 '2022-2023 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 발표'에 따르면 지난 2 년간 코로나 19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연면역이 낮아져 올해 독감 유행 위험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유행 시기가 한 달가량 앞당겨 짐에 조속한 예방접종을 권고했다.¹ 이에 사노피는 호흡기 질환에 보다 취약한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4 가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트트라주(Vaxigrip Tetra)' 2,500 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대표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

"올해 겨울은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질병청의 주위에 따라 서울시와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예방접종 일정을 전체적으로 앞당겨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 이웃들이 트윈데믹의 영향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백신 기업으로서 예방의학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¹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2022-2023 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 발표\(9.15.목 정례브리핑\)](#), 2022.09.15

강순원 팀장

공공의료사업지원팀 나눔진료봉사단, 서울의료원

"올 하반기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낮은 면역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며, "만성 질환은 물론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특히 더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용경 과장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서울시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체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9월에 발령된 경우가 처음인 만큼,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이른 시기에 동시 유행하며 트윈데믹 확산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12년간 꾸준히 사노피의 사회적임활동 헬핑핸즈를 통해 서울 지역 내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업 12년 차를 맞이한 사노피의 헬핑핸즈 프로그램은 지난 11여년 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적 5만 2600도즈 상당의 백신을 지원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노숙인 인식 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노숙인들의 취약한 의류 수급 실태를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헌 옷 모으기 행사 '더 빅드림(2012~2014년)' △노숙인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인 '빅프렌즈(2015~2016년)' △독감 예방 접종 활동의 효과성과 노숙인들의 신체·심리·사회적 인식 변화를 연구한 '헬핑핸즈 프로그램의 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평가' 등을 진행해 의료 취약계층의 예방 의학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단절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및 캡션

사진	캡션
	<p>서울역 광장 인근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에서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줄 서있는 모습</p>
	<p>노숙인·쪽방 주민의 독감 백신 접종을 위해 협력 중인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 의료진 및 사노피 관계자</p>
	<p>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내 무료 독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는 노숙인·쪽방 주민</p>

붙임

2022년 주거 취약계층 무료 독감 예방접종 주요 접종 일정

연번	접종 일시	접종 시간	장소	시설명	접종 단체	
1	10.6 ~ 7	-	다일작은천국		다일천사병원	
2	10.7		겨자씨들의등지		미래통증의학과	
3			길가온혜명		성재의원	
4	10.7 ~ 14		은평의마을		촉탁의	
5	10.11		여성보호센터		촉탁의	
6	10.18	-	양평쉼터		양평요양병원	
7		13:00 ~17:00	서울역 무료진료소	아가페의집	서울역 무료진료소 · 나눔진료봉사단	
				늘푸른자활의집		
				화엄동산		
				애원희망홈		
				아침을여는집		
				수송보현의집		
				희망나무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열린여성센터		
				구세군가재울쉼터		
				디딤센터		
				만나샘		
				창신동쪽방상담소		
남대문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목동의집						
8	10.19	13:00 ~17:00	서울역 무료진료소	십자가쉼터	행동하는의사회	
				강동희망의집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9	-	돈의동쪽방상담소		행동하는의사회		
10	10.25	13:30 ~16:30	영등포 무료진료소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 무료진료소 · 나눔진료봉사단	
				햇살보금자리		
				청담광명의집		
				대한성공회살림터		
				내일의집		
11	10.27	13:30 ~16:30	영등포쪽방상담소			
12			광야홈리스센터			

13			옹달샘드롭인센터	
14	10.28	13:00 ~16:00	가나안쉼터	나눔진료봉사단
15	11.1	13:00	비전트레이닝센터	
16		~16:00	24시간게스트하우스	
17	11.2	13:00 ~16:00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